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창간 30주년 since 1989
한라일보

제주골프회원권 거래전문
(주)탐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 064)745-8884

漢拏日報 제8942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9월 9일 월요일(음력 8월 11일)

한라포커스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 어떻게 되나

연착륙 성공사례 비춰 실현 가능성 커

지역주민 신뢰 잃어 의료원 현행 운영 어려울 듯
원 지사, 추진협의회와 본격 연구·협상 입장 표명
제주대학병원 의지·맡을 여력 등 향후 변수 예상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가능할까.

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거점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병원 등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원희룡 지사와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추진협의회(회장 양광순)는 지난 5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추진협의회는 또 지난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청원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서귀포시민 19만여 명 중 약 40%에 달하는 8만 6837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지난 6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에 '서귀포의료원 위탁 타당성 연구'를 맡긴 가운데 조만간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은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결정에 따라 대학병원과의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제안하게 되면 새롭게 취임하는 병원장 등의 수용여부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국내에서 위탁운영의 사례는 경남 마산의료원을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전북 군산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들 병원 중 마산의료원을 제외하고 모두 위탁운영을 끝내고 해당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다. 위·수탁후 1997년 재개원한 마산의료원은 1999년 만성적자구조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공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의 성공적인 위탁사례들로 인해 서귀포의료원의 위탁운영 가능성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위탁운영할 경우 의료원과 대학병원 양측의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 제주대학교병원이 맡을 여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위탁이 결정되면 양측의 협의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비관적이지 않다는 여론이다.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1964년 1월 제주도립 제주병원 서귀분원으로 개원했다. 이후 1983년 지방공사 도의료원으로 전환돼 1994년 3월19일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2006년에는 지방의료원으로 전환됐으며, 2007년 서귀포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3년 10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신축이전해 현재 17개 진료와와 300병상을 갖췄다. 조상윤기자

동남아·신흥시장 관광객 유치 '박차'

도, 대형 국제박람회 참가
신규 관광상품 적극 개발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남아 및 신흥시장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대형 관광 박람회 참가와 설명회 개최를 통해 동남아 및 신흥 시장 소비자들에게 제주의 관광 콘텐츠를 직접 홍보하고 항공사 공동 마케팅과 경유 상품 개발을 통해 제주관광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관련해 동남아 주요 국가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현지 대형 박람회에 참가하고, 쿠알라룸푸르-제주 직항 에어아시아엑스와 공동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국제 관광 엑스포(ITE HCMC 2019)와 6일부터 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국제관광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코리아 페스티벌'에 참가해 제주의 관광자원과 신규 체험 콘텐츠를 현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홍보하기도 했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8일부터 9일까지 중동지역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 담당자를 초청해 태국 경유 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며, 10월 초에는 프랑스 파리 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체험 프로그램을 현지 여행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도내 2208개 일제점검

도, 충전기 주변 정비도 병행

추석 대목 맞은 제주민속오일시장 어느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코 앞이다. 7일 제주민속오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차례에 사용할 제수용품을 구매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상국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 기간 제주 방문객 증가와 맞물려 전기차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2208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일제점검에는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민간충전사업자 등 총 19개 관리업체 및 관계기관 점검자들이 투입되며, 점검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제주도는 충전기 커넥터 균열, 파손·오염 여부 등 상태를 점검하고 충전기 주변에 대한 정비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충전기 제조사 및 유지보수업체를 긴급 투입해 추석연휴기간 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할 방침이다.

또 추석연휴기간에 제주EV통합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며, 전기차 이용자들로 구성된 전기차 서포터즈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도 지속한다.

콜센터는 충전기 사용법과 위치, 고장 등 문의에 대한 안내 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제주도에는 8월말 현재 1만7559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있으며, 충전기는 비공용 홈충전기를 포함해 1만4278기가 설치·운영 중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주네비게이션 AS센타
블랙박스 점검센타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